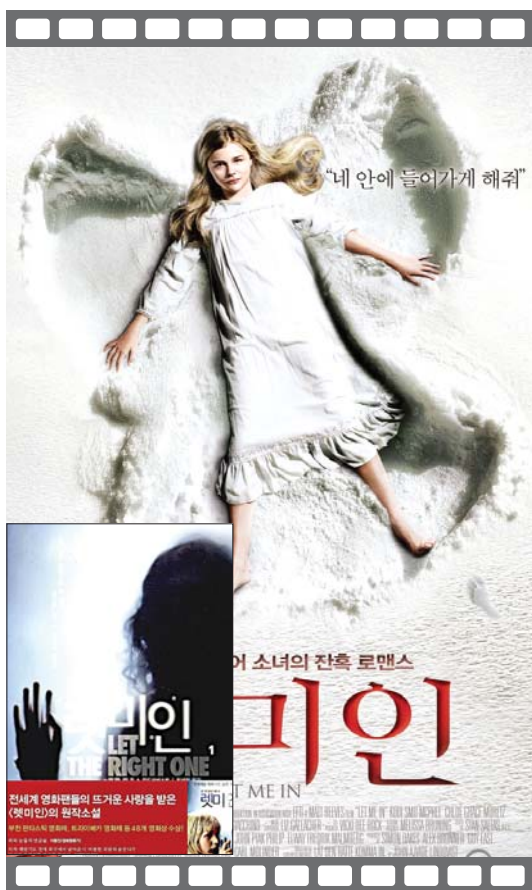


원작만큼 재밌다

알고봐도 재밌다

비교하면 더 재밌다



‘완득이’ ‘소와 함께 여행하는 법’ ‘렛미인’ ‘아메리칸’...

영화 원작 만화·소설, 스크린과 서점가에 동시 인기몰이 나서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007년 제 1회 창비 청소년문학상 수상작인 ‘완득이’가 영화로 관객들을 만난다. 2008년 출간 후 지금까지 70만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인 ‘완득이’는 가난한 집 아들이 공부도 못하는 문제아에 반항하지만 싸움만큼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열일곱 소년 완득이가 성장해가는 과정을 유쾌하게 그린 소설이다.

특히 완득이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괴짜 담임 ‘동주’의 캐릭터가 인상적인 작품으로 동주 역에 연기과 배우 김윤석이 캐스팅돼 기대감이 높다.

‘타짜’ 이후 총무로가 가장 반기는 배우가 된 김윤석은 이후 출연작인 ‘추격자’, ‘거북이 난다’, ‘전우치’ 등이 모두 흥행에 성공하면서 주가를 높이고 있다. 감독은 ‘연애소설’ ‘청춘만화’ ‘내 사랑’ 등을 연출한 이한 감독이다.

원작자 김려령은 제8회 문학동네어린이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완득이’ 후 내놓은 ‘우아한 거짓말’ 역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공효진이 주연을 맡은 영화 ‘소와 함께 여행하는 법’은 소설가 김도연의 동명 작품을 원작으로 한 영화다. ‘소와 함께 여행하는 법’은 화제가 소 팔러 나온 노총각 시인 선호, 7년 만에 누닷없이 찾아온 옛 애인 현수, 의문스러운 소 먹보의 7박 8일 여행을 그린 영화다. 특히 여행길에 등장하는 경북 영덕의 고래볼 해수욕장, 의성 수정사 등 아름다운 풍광이 눈길을 끄는 작품이기도 하다.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의 임순례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으며 극단 ‘골목길’의 간판배우인 신에 김영필이 주인공을 맡았다.

18일 개봉한 매트 리브스 감독의 ‘렛미인’ 역시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온 A. 린드크비스트의 ‘렛 더 라이트 원 인’(Let The Right One In, 한국 출간 제목

렛미인)이 원작인 ‘렛미인’은 12살 뱀파이어 소녀의 독특한 성장기를 그린 영화. 스웨덴에서 2008년 먼저 영화로 만들어졌으며 할리우드판 ‘렛미인’은 1981년 스웨덴 배경인 원작 분위기를 80년대 미국으로 옮겨왔다.

오는 12월 말 개봉을 앞두고 있는 스릴러물 ‘아메리칸’도 기대작중 하나다.

조지 클루니가 주연을 맡은 ‘아메리칸’은 전 세계 최고의 암살용 총기 제작자가 은퇴 직전에 마지막으로 겪는 한 판 승부를 그린 작품. 영국 출신 작가 마틴 부스의 스릴러물 ‘미스터 버터플라이’가 원작으로 영화 개봉 당시 미국 박스 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이탈리아, 스웨덴 등 유럽에서 유행이었던 주인공이 자신이 제거대상이 되었음을 알게 되면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맞서는 내용을 그리고 있다.

최근 개봉했던 줄리아 로버츠 주연의 영화 ‘먹고 기



도하고 사랑하라’ 역시 ‘코요테 어글리’ 등을 쓴 엘리자베스 길버트의 소설이 원작이다.

12월 개봉을 앞두고 있는 해피포터 완결편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는 조안 롤링의 작품이 원작이다.

‘나니아연대기-새벽 출정호의 항해’(12월9일 개봉) 역시 판타지 문화의 고전으로 불리는 C.S 루이스의 소설이 원작이다.

전세계 29개 언어로 번역돼 총 8500만부 이상 팔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나니아 연대기’는 지금까지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 ‘캐스피안 왕자’ 등 두편이 영화로 만들어졌다. 세번째 시리즈인 ‘새벽 출정호의 항해’는 3D로 제작됐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새 영화

페스티벌



다채로운 성적 취향을 갖고 있는 인물들이 등장하는 색시 코미디물이다.

정력에 대한 자신감 하나로 살아온 장배는 여자 친구 지수의 자위기구를 보고 실의에 빠진다. 장배의 우락스라움에 질린 영어강사 지수는 혼자 오르가슴을 느끼기 위해 갖가지 도구를 사들이고 있는 중.

한복집을 운영하는 정숙한 과부 순심은 채찍과 쇠사슬을 보고 묘한 흥분감에 젖고 이를 계기로 철물집 주인 기봉과 때리고 맞으며 사랑(?)을 나누는 묘한 관계를 유지한다.

우리 이웃들의 아홉 코믹한 밤사정
점잖은 우리 동네 풍기문란 단속 피해
각자의 색시 판타지를 꿈꾼다

순심의 딸인 여고생 자혜는 동네 어묵장수 상두를 짝사랑하지만 말하지도 못하는 인형과 열애중인 상두는 나몰라라 한다.

국어교사 광복은 어느날부터 라제리를 즐겨입기 시작한다.

영화를 풍성하게 하는 건 다양한 에피소드를 풀어내는 배우들이다. 오래된 연인을 연기한 신하균과 임지원을 비롯해, 심혜진과 성동일, 류승범과 백진희의 커플 연기가 눈에 띈다. 광복 역은 오달수가 맡았다.

‘천하장사 마돈나’를 통해 성적 소수자의 이야기를 그려낸 이해영 감독의 두번째 영화다. <18세 이상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www.geumsoojang.com

내집같은 편안함!

광주에는 금수장관광호텔이 있습니다.

객실요금 4만원부터

부담 없습니다. 4-5만원대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

편리합니다. 광주역에서 도보 7분, 광주고속터미널 차편 15분 거리 전남대, 조선대, 교대, 아시아문화전당(구도청), 예술의거리, 충장로 등 시내 주요 거점이 10분거리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이 인접 전 객실 Free Wifi, 비즈니스센터, 한식당, 커피숍, 와인바, 연회 등 다양한 부대시설

편안합니다. 한담 한담 직접 케어 정성껏 준비하는 깨끗한 침구 가족, 여행객, 비즈니스, 출장객의 주요 고객

☎ 예약문의. 062)525-2111(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moviehelic 영화에 빠지다

MEGABOX

CINUS

상무점	하남점
1관 불량남녀 (15세)	1관 초능력자 (15세)
2관 렛미인 (15세)	2관 부당거래 (18세)
3관 두여자 (18세)	3관 불량남녀 (15세)
4관 부당거래 (18세)	4관 가디언의전설 (전제/쑤우) (18세)
5관 쑤우3D (18세)	5관 페스티발 (18세)
6관 소셜네트워크 (15세)	6관 언스토퍼블 (12세)
7관 레드 (15세)/언스토퍼블 (12세)	7관 두여자 (18세)
8관 페스티발 (18세)	8관 렛미인 (15세)
9관 초능력자 (15세)	9관 소셜네트워크 (15세)
10관 초능력자 (15세)	10관 초능력자 (15세)

향토사랑! 영화사랑! 매일 심야상영/호남최대주차장 / www.cinus.co.kr
3D디지털 상영! 상무점, 하남점 동시개봉!!

MEGABOX: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차타워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CINUS: 색깔있는 영화상책 * www.cinus.co.kr 씨너스전대3D(4K)상영!!